

근대 일본인의 기자조선 인식*

윤 병 모**

【국문초록】

근대 일본인의 기자조선에 대한 연구는 단군부정과 함께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부류 또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하는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시라토리 와 이마니시, 이나바 등은 기자조선의 존재 또는 기자동래설을 부인한다. 이는 현재 한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기자동래 부인설과 같은 맥락을 가지나 그 근본은 다르다. 곧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자조선 부인설은 기자동래를 부인하여 고조선의 역사를 위만조선 이후로 내리려는 목적이 있다. 때문에 당시 조선의 역사를 위만 이후 삼한 시대에 한정함으로써 일본의 역사가 더 오래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저의가 있다. 반면에 이러한 근대 일본의 정통사학자들과는 다르게 츠네야 세이후쿠와 니시카와 켄 등은 요서~요동~평양 등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한다. 1910년대를 전후하여 일인들이 이처럼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한 배경에는 일본육군의 만주 진출에 따른 만주에의 관심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들에 의한 근대 일본인들의 기자조선 인정설은 일본의 대륙 진출과 연관되어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의 정통 사학자들에 의한 기자조선과 기자동래 부정설은 오늘날 한국학계에서 주장하는 기자조선 및 동래 부정설과는 그 근본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근대 일본인들에 의한 기자조선 부정설은 일본이 조선보다 건국이 오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창출된 것이었다. 결국 시라토리 등 근대 일본의 정통 사학자들에 의한 기자조선 부정설은 분명 식민지시대 식민주의 역사학의 테두리 안에 있고 또 그들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일방적인

* 이 논문은 흥익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것에 불과함이 노정되고 만다.

【주제어】

근대 일본인, 기자조선, 기자전설, 식민주의역사학, 고조선

◆ 차례

1. 머리말
2. 1900~1910년대 전후 일본인의 기자조선 인식
3. 시라토리 와 이마니시, 이나바의 기자조선 인식
4. 맺음말

1. 머리말

기자에 대해 전해지는 문헌에서 기자가 조선에 갔다거나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것은 이미 고조선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¹⁾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은 단군조선을 의미하며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사이의 기자나 기자의 동래에 대해서는 중국문헌에 보이고 있다. 즉 기자와 기자동래설에 대한 언급은 중국문헌 중에서도 『상서대전』 「주서」와 『사기』 「송미자세가」 및 『한서』 「지리지」 현도와 『후한서』 「동이열전」 예조 등에 나타난다. 여기서 기자의 동래와 관련하여 기자조선 관련 서술이 선진문헌에는 없고 『상서대전』을 비롯하여 모두 전한대 문헌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점이 지적된다.²⁾ 기자조선이 전한대부터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다분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곧 한사군이 전한과 후한과 연결되어 그 정치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자조선

1) 김남중, 「箕子 전승의 형성과 단군 신화에의 편입 과정」, 『韓國史學報』 65, 2016, 91쪽.

2) 오현수, 「箕子傳承의 형성과정 연구」, 『韓國史學報』 65, 2016, 53쪽.

기록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자신이 등장하고 있지만 삼국시대 이후 기자 존숭에 대한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 중기였다. 이 시기에는 유교의 위상이 높아지며 기자 숭배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왕운기』에 전조선으로서 단군조선과 후조선으로서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3조선설이 나오게 되었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사이 기자조선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제왕운기』에 이르러 기자조선이 단군조선의 후계로 자리 잡은 것이었다.³⁾ 조선시대에 들어와 기자조선은 유교 원리에 따라 사대모화의 상징처럼 되었고 평양이 그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또 조선조 말에 단기(檀箕)라 표현되며 단군과 기자가 하나의 단위로 이해되고는 하였다.⁴⁾ 하지만 대한제국이 들어서며 왕업중흥(王業中興)의 이념에 의하여 단군보다 기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⁵⁾ 정교(鄭喬)의 『대동역사(大東歷史)』와 현채(玄采)의 『동국사략(東國史略)』, 「대한지지(大韓地誌)」⁶⁾등에 의해 그 영역이 요동까지 확대되는 등 기자조선이 강조되었다. 이런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이 대한제국이 패망하며 근대 일본인들에 의해 단군부정과 함께 기자조선 부정론으로 번지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에는 근대 일본인의 단군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⁷⁾ 주로 단군과 단군조선의 존재 부정에 관한 근대

3) 정구복, 『韓國中世史學史』, 집문당, 1999, 303쪽.

4) 류시현, 「일제강점기 민족사의 구성과 기자(조선) 인식」, 『韓國史學報』 65, 2016, 204쪽.

5) 박광용,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 『韓國史論』 6, 1980, 287쪽.

6) 현은, 「大韓地誌」, 『대한협회보』 2, 1908.

7) 2021·2022년도 흥익재단 연구지원 사업 ;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신화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2021 ; 윤병모, 「근대일본의 단군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7, 2022 ; 이근우, 「白鳥庫吉의 일본신화와 단군신화 이해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40, 2022 ; 윤승준,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단군신화 연구 비판」, 『한국고대사탐구』 40, 2022 ;

일본인들의 연구 비판이었다. 하지만 근대 일본인의 고조선사와 관련된 연구에서 기자조선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군과 관련된 연구 중에 일부 언급될 정도였다.⁸⁾ 그렇지만 근대 일본인의 고조선사 인식과 관련하여 기자조선 문제의 중요성을 볼 때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근대 일본인의 기자조선 인식과 관련하여 학술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 그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근대 일본인의 기자조선 인식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대상은 1900년과 1910년대를 전후한 하야시 타이스케(林泰輔)의 『조선사(朝鮮史)』⁹⁾와 츠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의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¹⁰⁾,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조선문화사론(朝鮮文化史論)』¹¹⁾, 그리고 니시카와 켄(西川權)의 『일한상고사의 이면(日韓上古史ノ裏面)』¹²⁾과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의 논문¹³⁾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정통 사학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와 이마니시 류(今西龍),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등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 등을 비롯한 이들 정통 사학자들은 단군부정과 함께 기자조선의 존재도 부인하였다. 반면에 츠

조원진,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0, 2022.

- 8) 홍을표, 「기자조선에 대한 문헌적 분석」, 『江原史學』 24·25, 2011; 오현수, 「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 『大東文化研究』 79, 2012; 조원진,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고조선 연구와 문제점」, 『先史와 古代』 69, 2022; 조원진, 「기자동래설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9, 2023.

9) 林泰輔, 『朝鮮史』, 吉川半七, 1892.

10) 恒屋盛服, 『朝鮮開化史』, 博文館, 1901.

11) 細井肇, 『朝鮮文化史論』, 朝鮮研究會, 1911.

12) 西川權 著, 『日韓上古史ノ裏面』 上卷, 椎川龜五郎 編, 偕行社, 1910.

13) 三浦周行, 「朝鮮の開國傳説」, 『歴史と地理』 第1卷 第5號, 史學地理學同友會, 1918.

네야 세이후쿠와 니시카와 켄 등 재야계열은 기자조선 요서~요동 이동설을 주장하였다. 이들 두 계열의 근대 일본인 연구자들이 주장한 기자조선을 검토하여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와 배경, 영향 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2. 1900~1910년대 전후 일본인의 기자조선 인식

1890년대 근대 일본에는 아시아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도우야마 미즈루(頭山滿)와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로 도우야마 미즈루는 국가주의자이며 아시아주의자이기도 하였다. 동아동문회는 1898년에 성립된 아시아주의 민간단체로 당시 일본에 선행하던 아시아주의 단체로 흥아회를 흡수 합병하며 발족된 단체에 해당한다. 츠네야 세이후쿠가 바로 동아동문회에 합류하게 된다.

츠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는 1855년부터 1909년까지 산 인물로 메이지시대의 국가주의자로 잘 알려진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망명중인 박영효와 더불어 조선¹⁴⁾에 오며 조선의 내정개혁에 관여하게 된다. 동아동문회 간사를 역임했고 도우야마 미즈루와 함께 국민동맹회를 조직하여 러일전쟁의 개전을 주창하게 된다. 츠네야 세이후쿠는 1901년에 『조선개화사(朝鮮開化史)』를 저술하며 그 속에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언급하고 있다.

호소이 하지메(細井肇)는 1886년에 교토에서 태어나서 1934년까지 살았는데 18세에 이미 신문기자를 역임한 바 있다. 도쿄아사히신문 등에서 정치부기자 생활을 7년이나 하는 등 신문기자 출신으로 1908년 조선

14) 이하 기술에서 ‘조선’, ‘조선인’, ‘조선상고사’, ‘조선반도’, ‘기자전설’ 등에 관한 명칭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인들이 쓴 용어를 인용한 것뿐으로 현재 필자가 쓰는 용어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으로 건너갔다. 조선에 온 호소이 하지메는 우치다 료헤이가 경영하던 일한전보통신사에 근무하며 당시 통감부 촉탁이었던 아오야기 츠나타로(靑柳綱太郎 호는 南冥) 등을 만난다. 당시 대한제국 내에서는 흑룡회 계열의 낭인과 재조 일본지식인층이 모여들었고¹⁵⁾ 이런 과정 속에 우치다 료헤이와 함께 한일합방 운동도 지원하게 된다. 이후 조선의 민족문제에 몰두하여 『조선문화사론(朝鮮文化史論)』 등의 저서를 내게 된다. 호소이 하지메는 『조선문화사론』에서 ‘인습이 오래되어 험괴하고 속이고 비밀스럽고 비굴하고 음란잔인한 특성’¹⁶⁾이라고 조선을 비하하고 있다. 이 경우 호소이 하지메는 언론인으로 근대 일본인에 의한 조선 멸시론자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츠네야 세이후쿠와 호소이 하지메와 같은 조선 멸시론자의 조선역사 서술은 이미 오치아이 나오즈미(落合直澄)나 하야시 타이스케(林泰輔) 등에 의한 단군조선 서술에서도 드러난다. 오치아이 나오즈미는 단군이 일본의 신인 스사노오(素戔鳴)신의 아들이라고 주장¹⁷⁾하거나 하야시 타이스케는 단군에 대해 황당하여 믿을 수 없다고 주장¹⁸⁾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근대 일본인에 의한 조선상고사 부정이나 멸시는 다음에서 보는 재야계열 인사나 정통 사학자들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따라서 식민지시기 조선상고사의 연구에는 논리근거에 있어 그 한계가 분명히 노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근대 일본인들에 의한 단군과 기자조선 연구에는 그 논리 근거가 더욱 박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보자. 먼저 츠네야 세이후쿠와 호소이 하지메와 같은 재야계열 인사에 앞서 근대 일본인 중

15) 윤소영,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조선 인식과 ‘제국의 꿈」, 『한국근대사연구』 45, 2008, 4쪽.

16) 서신혜, 「일제시대 일본인의 古書刊行과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활동」, 『溫知論叢』 16, 2007, 406쪽.

17) 落合直澄, 『帝國紀年私案』, 吉川半七, 1888.

18) 林泰輔, 『朝鮮史』, 吉川半七, 1892.

에 기자조선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인물은 하야시 타이스케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하야시 타이스케는 1854년에 나서 1922년까지 살았는데 1887년 도쿄대학 고전강습과를 졸업하고 1896년에는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 교수에 임명되었다. 하야시 타이스케는 한학자이고 또 메이지시대 조선사 연구의 개척자로 알려지며 1903년 이후에는 중국고대사 연구로 방향을 튼다. 1892년에 발간한 『조선사(朝鮮史)』에서 하야시 타이스케는 조선에서의 최초 국가는 기자조선이라 주장한다. 즉 기자가 중국의 5천여 인을 거느리고 조선에 왔는데 그 도읍은 평양이라 주장하며 기자조선의 영역은 황해도 이북과 남만주 일대에 걸쳐 있었다고 보았다. 또 1912년에 발간된 『조선통사(朝鮮通史)』에서도 기자조선에 대해 언급한다. 여기서 하야시 타이스케는 기자가 조선에 올 때 조선의 영역은 지금의 요동으로부터 조선북부에 걸쳐 있었고 기자가 산 곳도 요동지역이었다고 보았다. 그 후 위만이 기준을 멸망시키고 왕험(王險)에 도읍을 정했는데 그곳이 지금의 평양이라 주장하였다.¹⁹⁾

이상 하야시 타이스케의 기자조선론은 기자조선이 처음에 요동에 있었다가 나중에는 평양으로 옮긴 것으로 곧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 같은 이동설은 이후 츠네야 세이후쿠 등 일본 재야계열 인사들의 기자조선 이동설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출신 면에서 하야시 타이스케는 츠네야 세이후쿠와 같이 재야계열 인사가 아닌 도쿄제국대학 교수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근대 일본인의 기자조선 연구가 후일 이마니시가 주장하는 기자조선 부정설과는 다르며 곧 기자조선 인정설을 하야시가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20년대 전후하여 등장하는 근대 일본인의 기자조선 부정론과는 대비된다. 하야시 타이스케가 기자조선을 연구하던 시기는 근대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기 직전에 해당한다. 때문에 하야시

19) 林泰輔, 『朝鮮通史』, 富山房, 1912, 5~8쪽.

의 기자조선 인정설과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결국 하야시 타이스케에 의한 요동~평양 이동설은 기자조선 이동설의 단초를 열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 하야시 타이스케는 기자와 위만은 모두 중국인이라며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은 중국의 정치를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⁰⁾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야시는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하면서도 기자와 위만을 모두 중국인으로 설정하여 기자와 위만을 중국인의 부용정권으로 자리메김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야인사 중에 우익분자에 해당하는 츠네야 세이후쿠부터 검토하여 보자. 츠네야 세이후쿠는 기자조선에 대해 현재의 조선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하일대에 있었다고 보았다. 츠네야 세이후쿠는 또 기자가 은나라 유민 5천을 거느리고 도읍을 정한 것은 요서지방이었고 기자의 자손이 평양에 도읍을 정한 것은 기자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뒤의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기자의 후손이 연의 침공을 받아 서쪽 2천여 리를 빼앗기고 만변한을 경계로 하였다고 보았다. 기자의 40대손인 부(否)가 죽고 그 아들인 준(準)이 연나라에 대항하였으나 실패하여 패수 이북의 땅을 연나라에 할양하고 준은 패수 이남에 자리 잡았다고 보았다.²¹⁾

츠네야 세이후쿠의 이상과 같은 고조선사 곧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은 기자조선 인정과 기자조선 이동설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자조선의 요서~요동~평안도 이동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츠네야 세이후쿠는 다음에서 보는 니시카와 켄과 같은 기자조선 이동설의 입장에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1910년대를 전후하여 츠네야 세이후쿠와 니시카와 켄이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한 배경에는 일본육군의 만주진출에 따른 만주에의 관심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²²⁾

20) 林泰輔, 『朝鮮史』, 吉川半七, 1892, 20~21쪽.

21) 恒屋盛服, 『朝鮮開化史』, 博文館, 1901, 109~112쪽.

당시 제국주의 일본은 러일전쟁을 통하여 조선과 만주 침략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근대 일본의 재야계열 인사들이 조선과 만주의 상고사를 통해 일본의 만주진출에 대한 이념적 근거로 삼고 그 배경으로 인해 기자조선 인정과 이동설을 주장한 것이었다. 츠네야가 우익 분자인 도우야마 미츠루와 함께 한 배경도 그것에 있다. 이동설의 입장에서는 다음에 보는 호소이 하지메의 기자조선 요서~요동 이동설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하야시 타이스케가 기자의 첫 정착지가 요동지역이라 주장²³⁾한 것에 비해 츠네야 세이후쿠는 요서지역으로 본 것이 다른 점이다. 이후 기자가 요동에서 평양으로 옮겨 간 것은 같은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츠네야는 당시 패수에 대해 패수는 압록강으로 기자조선은 그 말기에 조선반도의 평안도와 황해도 2도만을 차지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츠네야는 기자조선의 최후를 평안도 지역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위만조선이 결국 평안도 지역으로 매몰되는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이는 위만조선을 평안도 지역으로 묶어 조선상고사를 압록강 이남으로 배치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츠네야의 기자조선 인식의 한계를 보인다. 이와 같은 한계는 호소이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제 호소이 하지메를 검토하여 보자. 호소이 하지메는 기자에 대해 중국에 대한 모화사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중국세력의 확장에 따라 대륙에서 쫓겨나 반도에 들어오게 된 것일 뿐이라 주장했다.²⁴⁾ 다른 측면에서 호소이 하지메는 기자가 요하의 동쪽에는 오지 않았고 평양은 지금의 요양이라는 견해를 보여 당시로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했다. 이는 니시카와 켄과 더불어 1910년대 일본의 재야계열 인사들이 기자조선에 대해 보는 기자조선 요서성립설의 한 단면을 보여

22) 鈴木隆史, 『日本帝國主義と滿州 1900~1945』 上卷, 塙書房, 1992.

23) 林泰輔, 『朝鮮史』 吉川半七, 1892; 林泰輔, 『朝鮮通史』, 富山房, 1912.

24) 細井肇, 『朝鮮文化史論』, 朝鮮研究會, 1911, 28~34쪽.

준다. 이는 시라토리나 이마니시 등 정통 사학자들에 의한 기자조선 부정설과는 대조를 이룬다. 먼저 호소이 하지메는 기자는 기국(箕國)의 자작(子爵)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인명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 기자는 본래 평양에 오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자릉 등 기자관련 유적과 유물 등은 후세 사람들의 부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평양의 기자 유적에 대한 부인은 다음에 보는 미우라 히로유키와도 마찬가지로 이룬다. 호소이는 기자의 40세손은 청천강 이북지방에 있었을 지라도 기자의 제1세는 요서에 있었다고 보아 기자의 동래설은 인정하는 듯하다. 기자의 1세는 『춘추원명포』에 기국(箕國)은 기성(箕星)에 있고 기자는 의무려산에 단을 세워 기성에 제사지낸 것이고 또 유주는 요서에 있음으로 이로 볼 때에 기자 1세는 결코 요하 이동에 온 적이 없다는 것이 호소이의 주장이었다. 이로 보아 하야시와 츠네야가 기자의 최초 정착지가 요동인 점에 비해 호소이는 요서로 보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기(箕)는 동북방에 나타나는 별자리로 『여씨춘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춘추원명포』는 전한 말과 후한대 초에 성립된 책에 해당하며 『춘추원명포』는 니시카와 켄의 『일한상고사의 이면(日韓上古史ノ裏面)』에서도 거론된다. 호소이 하지메는 기국(箕國) 곧 기자의 나라는 처음으로 조선이란 명칭을 썼고 조선이란 뜻은 동방이 먼저 밝아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본 것이었다. 이후 중국민족이 점차 발전하자 조선은 동쪽으로 옮겨가고 기자의 후손들은 패수를 넘어 천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곧 중국세력의 확장에 따라 대륙에서 쫓겨나 반도에 들어오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중국세력에 의한 기자의 이동설은 미우라 히로유키에게서도 보인다. 이 때문에 기자조선의 존재의의는 발생과 동시에 소멸했다는 주장이다. 호소이는 “자기 나라의 체면을 위해 중국의 성인(聖人)을 빙자하여 이룬 국가는 이웃 국가의 간판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광고한 것에 불과하다”²⁵⁾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한다. 결국 호소이 하지메는 니시카와 켄 주장처럼 요서~요동의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한 것이지만 또한 기자 출신에 대한 중국인설을 주장하여 기자는 조선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한 것이다. 이런 기자에 대한 중국인설은 하야시 타이스케의 주장을 이어 받는 것으로 결국 호소이나 하야시는 모두 조선상고사를 부정한 셈이다.

다음으로 니시카와 켄(西川權)은 1910년 10월에 일본육군 참모본부의 위촉을 받아 1910년 12월에 『일한상고사의 이면(日韓上古史ノ裏面)』이라는 책을 상·중·하 3권으로 펴낸다. 니시카와 켄에 대한 서지학적 자료는 일본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 찾아 볼 수 없지만 이 책이 1910년 10월에 저술이 시작된 것을 본다면 한일합방 직후 조선의 합병에 대한 합리화를 천명하기 위해 일본육군 참모본부가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기자조선에 대한 언급이 있다. 곧 기자조선이 위치한 곳은 연의 동쪽으로 고죽성(孤竹城) 인근지방으로 지금 요서지역의 창려(昌黎)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나라 성왕(成王) 시기에 기자조선은 의무려산 일대에 진출하여 그 강역이 동쪽 지역으로 확대된다고도 하였다. 의무려산 인근의 험독은 조선왕 부가 연장 진개에 의해 구축당할 때까지 약 800년간 기자조선의 왕성이었다고 보았다. 여기서 니시카와는 험독은 기자조선의 도읍을 지칭하며 지금의 북진(北鎭)이나 의현(義縣)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왕 부가 동쪽으로 도망하여 최후를 맞은 곳은 왕험성(王險城)으로 지금의 해성(海城)이라 보았다. 진개에 의해 구축당하기 이전의 기자조선의 도읍은 800년 고도로 평양에서 서쪽으로 2천여 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²⁶⁾

니시카와 켄은 천문(天文)의 분야에서 연과 기자조선이 다 기성 곧 중국 동북방에 속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 것이다. 니시카와 켄은

25) 細井肇, 『朝鮮文化史論』, 朝鮮研究會, 1911.

26) 西川權 著, 『日韓上古史ノ裏面』 上卷, 椎川龜五郎 編, 偕行社, 1910, 39~73쪽.

기자조선이 연나라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니시카와 켄이 피력하는 기자조선이 요서지역 창려에서 기원하여 북진이나 의현을 거쳐 요동의 해성에서 최후를 장식하였다는 주장은 근대 일본인 중에 기자조선 인정설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순수한 학문적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니시카와 켄의 주장은 기자조선 이동설의 관점에서 보면 천관우²⁷⁾와 장박천²⁸⁾에게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니시카와 켄의 주장이 기자조선 이동설의 관점에서는 그 서두를 장식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천관우는 기자조선이 요서에서 요동으로 이어 대동강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다음 장박천은 기자조선이 요서에서 요동으로 이동하였다고 보았다. 천관우의 기자조선 이동설은 정통적인 기자조선 동래(東來) 부정론²⁹⁾에 대한 반론 성격일 수 있다. 최남선은 기자가 동래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또 동래하였다는 기자의 묘가 중국 양국(梁國)의 몽현(蒙縣)에 있음을 지적하였다.³⁰⁾ 장박천의 주장은 묘위 등 현재 중국학계의 기자조선 평양중심설³¹⁾에 대한 반론으로 여겨 질 수 있다. 결국 천관우와 장박천의 기자조선 이동설에 대한 견해에 앞서 니시카와 켄이 1910년에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한 것은 원칙론에서 같은 입장에서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니시카와는 지금 현재 평양에 있는 기자묘와 사당은 후세 위조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평양의 기자 유적을 부인하여 기자조선의 재요동설을 주장한 것이었다. 기자의 첫 정착지가 하야시와 츠네야는 요동이었고 호소이와 니시카와는 요서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전자가 요

27) 千寬宇, 「箕子攷」, 『東方學志』 15, 1974, 2~72쪽.

28) 張博泉,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1985, 35~42쪽.

29) 최남선, 「朝鮮史의 箕子는 支那의 箕子가 아니다」, 『怪奇』 2, 東明社, 1929, 62~76쪽 ;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367쪽.

30) 최남선, 앞의 논문, 1929 ;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367~370쪽.

31) 苗威, 『箕氏朝鮮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9, 52쪽.

동~평양설인 반면에 후자는 요서~요동설인 점도 다르다. 그렇지만 이들 양자가 모두 기자조선 이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니시카와 켄의 『일한상고사의 이면(日韓上古史ノ裏面)』이 일본육군 참모본부의 의뢰로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기자조선 인식에 있어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근대 일본의 만주 진출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당시 일본 군부는 만주침략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때이었다. 때문에 그 군국주의적 관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다음으로 1910년대에 위 네 명과는 활동방향이 다르며 정통 사학자의 길을 갔다고 할 수 있는 미우라 히로유키를 검토하여 보자.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는 1871년에 나서 1931년까지 살았는데 일본의 역사학자로 또 법제사 연구자로 잘 알려진다. 미우라 히로유키는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에서 수업하였고 1909년에는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교토 제국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미우라 히로유키는 기자조선에 대해 조선의 개국전설로 단군과 기자의 전설을 거론하며 중국의 역사서에 기자전설이 실려 있고 반면에 조선의 역사서에는 단군전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의 자손이 조선을 지배했다는 것이 의문시되고 그 선조로서 기자를 인정하는 것도 의문시된다고 주장하였다. 기자전설의 발생은 고구려 시대로 추정해 볼 수 있고 반면에 단군전설은 고려시대에 발생한 것이라 보았다.³²⁾

이상 미우라 히로유키는 기자전설이 중국 역사서에 실려 있는 반면에 단군전설은 조선의 역사서에만 실려 있다고 단언했다. 여기서 미우라가 기자와 단군에 대한 가치부여를 전설로 치부하는 것은 기자와 단군에 대해 실질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자전설이라는 측면은 이나바 이와키치에 의해 설화로 더욱 가치가 떨어진 다. 미우라는 『삼국유사』에 “단군이 기자에게 물려주고 장당경에 은둔

32) 三浦周行, 「朝鮮の開國傳説」, 『歴史と地理』 第1卷 第5號, 史學地理學同攷會, 1918, 6~11쪽.

하였다”³³⁾고 하는 단군전설은 원초적 신화형태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삼국유사』에 단군이 기자에게 물려주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단지 기자를 조선에 봉했고 단군이 장당경으로 옮겨갔다는 내용일 뿐이다. 또 기자동래설이 한나라 이전의 사료에 보이지 않고 그 이후의 사료에만 보이는 문제점이 기자조선 연구사로도 지적된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위만조선을 침략하여 무너뜨린 것에 대한 정통성 확보차원에서 한에 의해 기자동래 전설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우라 히로유키는 기자의 동래를 전설로 인정하면서도 처음 기자가 와서 정착한 곳은 요동지방이었다고 주장한다. 기자가 처음 정착한 곳이 요동이라는 주장은 이미 하야시 타이스케와 요시다 도고(吉田東伍)³⁴⁾에게서도 보인다. 그러면서 미우라가 평양의 기자유적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기자전설이 북한지방의 것이라는 이중적 주장을 보면 기자동래에 대해 전설로만 인정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미우라가 기자전설이 북한지방의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지방에 중국 하층민이 오고 그 문화를 이식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런 북한지방의 기자전설에 대해서도 북방 중국의 이민자들 사이에 발생했던 기자전설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이나바 이와키치도 기자전설에 대해 기자전설이 조선만의 것이 아니고 후금인 여진인에게도 기자전설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면을 가진다. 기자전설에 대한 최초의 중국북방 발생설은 기자동래 전설에 대한 반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기자전설의 중국북방 발생설의 배경에는 기자전설이 조선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나바 이와키치는 미우라의 기자조선의 요동 성립설을 다소 비껴나가 기자전설이 중국북방으로부터 나와 만주와 조선에 걸

33) 一然, 『三國遺事』 卷1, 紀異, 古朝鮮.

34)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富山房, 1893, 93~97쪽.

쳐 펼쳐 있으며 그것이 기자동래설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보아 미우라 히로유키의 기자조선 요동성립설은 다음에서 보는 이나바 이와 키치의 기자조선 요서~요동~조선 동래전설과는 그 출발선상에 다른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우라의 기자조선 요동성립설은 하야시 타이스케와도 비슷한 양상을 가진다고 지적된다.

기자조선의 신앙적 측면에 대해 미우라는 고구려에 기자신 신앙은 있지만 신라에서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고구려에 기자신이 보이는 것은 중국 쪽 『당서』에 있고 또 기자묘도 본래 평양에 있었다고 미우라는 보았다. 다만 기자사당은 고려 숙종 때에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곧 미우라는 기자조선 전설의 성립에 대해 고구려 시대설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예의 다른 일본인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미우라가 평양의 기자유적이라 하는 것은 모두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고려시대의 기자사당은 중국을 위한 것으로 조선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것은 앞서 호소이 하지메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근대 일본인들의 기자조선 인식에 있어 상투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자의 자손이 조선을 지배했다는 것이 의문시되고 그들이 선조로서 기자를 인정하였다는 것도 의문시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우라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중국북방 하층민에 의한 기자전설 발생설에 기반을 둔 것에 불과하다. 미우라는 기자전설에 대해 중국계 문화가 농후한 북한지방의 것으로 ‘한반도’ 고유의 한민족이 서식했던 남한지방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당성이 결여된다. 이 견해는 이미 식민지 조선의 단군론에서 이마니시 류 등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곧 식민지 조선의 단군에 대한 일본인 연구는 대부분 단군과 그 원형을 숭배한 사람들이 북방의 퉁구스족이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일종의 편견에 불과한 것이었다.

미우라 히로유키의 이상과 같은 기자조선 주장에 대해 최남선은 “老獯하고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³⁵⁾이라 평가하

고 있다. 또 최남선은 “檀君 傳說의 造作을 目睹한 것처럼 高麗 中葉 어느 僧徒가 당시의 民族的 感情을 基本으로 하여 지어낸 것이라고 斷定한 三浦 某는 실로 다 日本의 最高 學部에서 敎職을 擔한 者로, 朝鮮 督署의 殘祿客任을 帶한 者들이었다”³⁶⁾라고 평하였다. 미우라 히로유키는 1918년에 발표된 「조선의 개국전설(朝鮮の開國傳說)」에서 다른 일본인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단군전설에 대해 황탄의 설이라거나 고려시대에 창작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미우라는 기자전설 발생의 고구려 시대설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단군조선의 성립연대도 끌어내린 것이다.³⁷⁾ 곧 단군에 대한 존숭이 활발하였던 시기는 조선의 독립 자존심이 왕성한 시기라 주장한 것이다. 결국 미우라 히로유키에게 있어 단군이나 기자조선은 전설로 황탄과 부정의 대상이었지 인정과 긍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것은 이나바 이와키치에게도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3. 시라토리 와 이마니시, 이나바의 기자조선 인식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1865년에 나서 1942년까지 살았는데 일본의 동양사 전공자로 1886년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1904년에는 도쿄제국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1900년에 문학박사 학위를 얻었으며 스승으로는 나카 미치요를 두었고 제자로는 츠다 소키치(津田左右吉)가 있

35) 최남선, 「檀君論」, 『東亞日報』 1926, 3月3日~7月25日 ;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88쪽.

36) 최남선, 「檀君否認의 妄」, 『東亞日報』 1926, 2月11日~12日 ;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77~78쪽.

37) 전성곤, 「단군론-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방 문화 연원 연구」, 『단군론』(최남선 한국학 총서7), 경인문화사, 2013, 315쪽.

다. 1908년 만철도교지사에 근무하게 된 계기로 인해 역사조사실을 1908년에 설치하며 만선사 연구를 하기도 한다. 조선사와 관련하여 단군을 학문적으로 비판한 최초의 인물은 시라토리 구라키치로 기록된다.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1910년에 발표된 「기자는 조선의 시조가 아니다(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라는 글에서 조선의 전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전설은 기자의 전설이라며 기자는 『서경』 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말주초의 역사적인 인물이라 보았다. 반면 『상서대전』이나 『사기』 등을 보면 기자동천에 대한 전설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라토리는 기자전설이 생긴 것은 춘추전국 시대에 각 제후들이 독립해서 토지를 개척할 때에 연나라가 만주와 조선 방면으로 진출하여 마침내는 민족이 전란을 피해 반도로 그 세력이 이주한 때라고 보았다. 이때의 조선 반도는 마치 중국인(支那人)의 식민지와 같았고 은나라 말기의 현인인 기자를 그들이 선조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한다. 또 조선인이 기자를 그 시조로 삼는 것은 완전히 가공의 전설 즉 가공담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³⁸⁾ 하지만 시라토리가 조선반도를 중국의 식민지와 같다고 하는 것은 기자조선을 한사군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06년부터 조선의 건축조사 보고를 한 세키노 다타시(關野貞) 등에 의해 평양의 낙랑유적이 발굴되며 평양을 곧 기자조선의 영역으로 확정하고 싶어 한 배경이 깔려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기자동래를 전설로 치부하며 또 기자전설을 부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검토된다. 곧 왕협성의 왕협은 『역(易)』의 단전(象傳)에서 나온 말이며 기자는 물론 기자의 4대손인 부(否)와 그 이후의 준(準)도 『역』에서 나온 것으로 기자와 관련된 지명과 인명이 모두 『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역』이 적어도 공자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기자의 동래설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남선에

38) 白鳥庫吉, 「箕子は朝鮮の始祖に非ず」, 『東京日日新聞』 1910.8.31 ; 『白鳥庫吉全集』 第三卷, 岩波書店, 1970, 500~503쪽.

의해 고대 국도명은 대개 신역(神域)의 뜻이 있다며 왕험은 ‘성지신역(聖地神域)’이라는 견해가 나와 중국고전 출현설이 단언 부정되었다.³⁹⁾ 시라토리가 주장하는 단군조선에 대한 불설(佛說)과 기자조선에 대한 『역』 등 중국고전에 대한 출현설은 단순논리에 불과하다. 단군조선에 대한 불설은 이미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와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 근대 일본인이 단군조선에 대해 부정하는 한결같은 논리로 나오며 『역』에 대한 출현설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단군과 기자조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음이 지적된다. 시라토리는 왕험성과 부, 준에 대한 이름은 물론 삼한 즉 마한과 진한, 변한 등의 명칭이 『역』과 십이지의 영향을 받았고 또 부여의 사출도 즉 마가와 우가, 저가, 구가 등에 대한 명칭도 『역』과 십이지에서 나왔다는 주장을 한다.⁴⁰⁾ 이로 본다면 시라토리는 기자조선 및 삼한과 부여의 명칭 등이 모두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한국의 고대국가는 중국의 부용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시라토리가 단군신화에 대해 가공의 선담이라거나 불교의 가작담 또는 고구려시대 창안설로 그 가치를 내려 버린 것과 같은 이치에 있다. 물론 이러한 시라토리의 단군연구는 이후 식민지 조선의 단군비판이나 단군부정의 기초가 되었음은 이미 지적되고 있다.⁴¹⁾ 결국 시라토리의 기자와 단군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면 한국고대사는 그 존재가 부정된다.

또 시라토리는 이마니시 류와는 다르게 기자에 대해 기씨(箕氏)라고 하며 기자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이점은 이

39) 최남선, 「古朝鮮에 있어서의 政治規範」, 『朝鮮學報』 第1卷 第1號, 1930 :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363쪽.

40) 白鳥庫吉,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 第2卷 第2號, 東洋協會調查部, 1912, 125~180쪽.

41) 윤병모, 「근대일본의 단군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7, 2022, 7~15쪽.

마니시가 기자에 대해 시종일관 기자조선이라 칭한 것과 다르다. 시라토리가 준왕의 성씨를 기씨로 보아 준왕을 기준이라 하고 또 그 선왕인 부를 기부라 하는 등 기자조선에 대한 명칭을 기씨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위략』과 『후한서』 예조에도 조선후부(朝鮮侯否) 또는 조선후준(朝鮮侯準)이라고 나와 있어 기자조선에 대한 이 같은 기씨의 명칭은 타당하지 않다. 부와 준의 명칭에 대한 『역』의 기인설도 앞서 지적처럼 중국사서에 대한 건강부회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부와 준은 물론 기자에 대해 기씨라고 한 그 배경에는 시라토리의 기자조선을 부정하려는 태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남선은 시라토리 등 이와 같은 일본인의 단군론에 대해 일본인이 일종의 편견을 가지었다고 비판한다. 즉 “偏見으로서 偏見으로의 一圓環을 끝없이 돌아다님에 지나지 못한다. 그런데 그 偏見은 意識的, 無意識的의 兩種에 나눌 수 있으니, 무의식적 편견이란 것은 저 一般 歷史에 대하여 謬妄의 見을 가졌기 때문에 그 飛沫이 壇君에까지 미쳐 옴 따위이다”라며 시라토리를 비판하였다. 또 “白鳥씨 같은 이가 당초에 壇君을 抹削하기는, 혹시 단순한 觀察로 權假로 評斷한 것임에 불과했던 것이겠지마는, 이것이 일본인 일반의 무의식적 一欲求에 投合하여 편견이 편견을 낳다가 마침내 定說 비스듬한 결과를 본 것은 作者의 도리어 意外라 할 發展일는지도 모를 것이다”라고 일본인의 단군과 기자에 대한 편견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이 조선에 比하여 年代上 後輩가 아니라 하고 싶음과, 일본이 古代에도 조선에게 文化的 恩澤을 입은 일 없노라고 하고 싶은 心理에 긴밀한 관계를 가진 만큼, 이 깐깐스러운 偏見을 저네에게서 拔除함은 쉬운 일이 아닐 듯하다”⁴²⁾며 상고사에 있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우월성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도 지적하였다. 최남선에 의한 최남선 당대의 근대 일본인 연구자들에 대한 비판은 여

42) 최남선, 앞의 논문, 1926 ;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96쪽.

전히 유효하다.

시라토리를 비롯하여 이마니시에게 이르는 근대 일본의 정통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단군과 기자조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고사에 있어 일본이 조선보다 오래되며 또 우월하다는 심리가 그 배경으로 깔려 있다. 이는 식민주의 사관인 타율성론과 정체성론과도 연결된다. 상고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가식적(假飾的) 우월감은 거꾸로 상고사에 있어 일본이 조선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⁴³⁾ 결국 시라토리의 단군과 기자조선에 대한 견해는 일종의 편견에 가까운 것으로 학문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견해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마니시 류를 보자.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1875년에 나서 1932년까지 살았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사 전공자로 알려진다. 1903년 도쿄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1926년부터 경성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 교수를 겸임했다. 1906년부터 경주 등지를 여행하며 고고학 조사를 하였고 1913년에는 점제비를 발견한다. 1922년에는 「조선고사의 연구(朝鮮古史の研究)」로 교토제국대학으로 부터 문학박사의 학위를 받는다. 1916년에는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 편찬의 촉탁을 맡았고 또 조선총독부고적 조사위원회에 임명되기도 한다. 1925년에는 조선사편수회위원을 역임하였고 그의 대표적인 조선사 연구물로 『조선사의 간(朝鮮史の槩)』과 『조선고사의 연구』 등이 있다.

이마니시 류가 1922년에 발표한 「기자조선전설고(箕子朝鮮傳説考)」에서 밝힌 기자조선에 대한 이마니시 류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은나라 말기 기자가 조선에 들어와 왕이 되었다는 정도의 전설만이 전해질 뿐이고 『삼국지』 「동이전」 한전에는 기자의 자손에 대해 약간 전해지는 사실도 있지만 그 기사의 출처에 대해서는 의심할만한 점이 많다고 보았다. 기자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

43) 박찬홍,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장우순,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만선'과 '동양」,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다고 주장한 것이다.⁴⁴⁾

이상에서 볼 때에 이마니시 류는 먼저 조선인에게 전해지는 전설은 신라와 고구려, 백제 등 삼국시대에 관한 것으로 그 이전의 전설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변한다. 이는 삼국이전의 단군과 기자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비춘 것이다. 이마니시는 시라토리나 이나바처럼 기사를 전설로 치부하고 고려와 조선조에 들어와 주자학이 성행함에 따라 기자묘나 기자 사당 등이 설립되며 비로소 기자전설이 유행하였다고 본 것이다. 또 이마니시 류는 단군과 기자에 관한 것이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단지 전설로만 취급할 뿐이고 그것도 중국사서에만 전해진다면 중국사서라도 기자에 대해 전해지는 것은 『사기』 「조선전」에 조선이라는 국명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기자에 대해서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마니시 류는 『사기』 「조선전」보다 『위략』이 오히려 기자에 대해 더 자세하다고 주장한다. 이마니시는 『위략』이 『사기』보다도 자세한 것은 낙랑과 대방인에게 전해진 기록이나 전설을 『위략』이 이를 사료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피력하였다.

하지만 이런 『위략』에 나온 조선에 대해서도 이마니시는 그 사료적 가치를 불신한다. 곧 『위략』의 조선에 대한 기사는 낙랑한씨가 작성한 계보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위략』에 한씨라는 명칭이 나오고 낙랑한씨가 기자의 자손을 칭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강변한다. 결국 낙랑한씨 계보는 당시 성행하였던 위계보(僞系譜)의 하나로서 『위략』이 이를 비판없이 받아들인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위략』이 낙랑한씨의 위계보에 의해 기자후손에 대해 기록하였다는 이마니시의 견해는 타당성이 결여된다. 오히려 『위략』에 적힌 모든 사실을 부정될 수는 없고 특히 기자와 그 후손에 관한 사실은 매우 소중한 기록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마니시에 의한 낙랑한씨설도 당대 최남선에 의해

44) 今西龍, 「箕子朝鮮傳說考」, 『支那學』 第2卷 10·11號, 1922;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70, 131~173쪽.

부정되었다. 최남선은 기자조선에 대해 해씨가 세운 조선으로 개이지 조선 즉 해씨조선이라 주장하였다. 이 개이지 조선이 후에 기자조선으로 와전된 것이라며 개이지는 태양을 숭배하는 문화권에서 생성된 천제자 곧 일자(日子)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⁴⁵⁾ 따라서 이상의 최남선 주장에 의해서도 이마니시에 의한 낙랑한씨 가문에 의한 위계보설은 타당하지 않다.

이마니시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신분이 미약했던 이성계가 자신의 계보를 신격화하기 위해 보편적인 단군을 조선반도의 개국신인으로 끌어올리고 아울러 기자숭배도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또 기자와 단군은 그 숭배의 사상에서 본원이 다르지만 앞선 이성계의 예에서 보듯 양자는 동시에 존송하기에 이르렀으며 고려와 조선왕조 시대에 들어와 기자묘나 기자사당 등이 나타나는 것에서 증명된다고 하였다. 또 조선조 초기에는 단군과 기자가 동시에 존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마니시에게 있어 조선왕조 초기의 이런 단군과 기자에 대한 흐름은 이후의 기자 단독존송으로 흘러가는 흐름의 단초가 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은 단군과 기자를 동시에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⁴⁶⁾ 또 『태조실록』에 “朝鮮檀君 東方始受命之主 箕子始興教化之君”⁴⁷⁾라는 기록이 있고 『태종실록』에 “檀君 實吾東方始祖 宜與箕子 並祀一廟”⁴⁸⁾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런 정도전의 주장과 『실록』의 기록을 신뢰할 때에도 이마니시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또 이마니시는 조선조에 들어와 이이의 『기자실기』 등 많은 기자 관련이 저술이 있다고 말하나 이런 류의 기록들은 당

45) 최남선, 「朝鮮史의 箕子는 支那의 箕子가 아니다」, 『怪奇』 2, 東明社, 1929, 62~76쪽 ;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366~374쪽.

46) 박광용, 앞의 논문, 1980, 258쪽.

47) 『太祖實錄』 卷1, 太祖1年 8月 庚申條.

48) 『太宗實錄』 卷23, 太宗12年 6月 己未條.

시 모화사상에서 나온 서적일 뿐이며 기자의 실체에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는 책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마니시의 기자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고 또 기자전설은 『위략』 등 중국 사서가 위조한 것이며 기자조선은 아예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마니시 류가 1922년에 발표하였던 「기자전설고(箕子朝鮮傳説考)」에서 조선왕조 시대의 기자인식에 대부분 지면을 할애한 것에서도 그의 기자조선 부정이 증명된다. 이마니시 류는 조선인에게는 중화를 흠모하는 모화사상과 민족의 잠재된 힘을 믿는 자존사상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는 기자숭배로 나타나고 후자는 단군과 주몽 등 개국신인 숭배사상으로 표출된다고 정리하였다. 곧 기자숭배는 조선반도의 개국신인을 고구려 주몽에서 단군으로 끌어 올리는 작용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마니시가 기자조선에 대해 전설상의 존재이며 이마저도 중국사서에 전하는 날조된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단순논리에 불과하다.⁴⁹⁾ 마치 이마니시가 그의 단군연구에 있어 단군신화를 불설(佛說)에 기반하고 단군자체도 본래 부여와 고구려 등 통구스 민족 중 부여의 신인(神人)이며 오늘날 조선민족의 본체를 이루는 한민족의 신이 결코 아니라며 단군에 대해 폄하하고 있는 사실과 그 논리 면에서 일맥상통한다.⁵⁰⁾ 결국 이마니시 류의 「기자전설고」는 당시의 표현대로 말하면 「기자조선에 대한 이씨조선의 인식(箕子朝鮮傳説に就いて李氏朝鮮の認識)」에 불과할 뿐 기자조선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논증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이마니시에 의한 기자조선 부정론일 뿐이며 기자조선 부정론은 당시 식민주의 역사관의 한 단면이기도 하였다.

49) 심희찬,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韓國史學史學報』 28, 2013, 278쪽; 정준영,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중속성 발견하기」, 『사회와 역사』 115, 2017, 163쪽.

50) 윤병모, 앞의 논문, 2022, 16~23쪽.

이제 마지막으로 이나바 이와키치를 살펴보자.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는 1876년에 나서 1940년까지 살았는데 조선사와 중국사를 전공했고 중국 북경에 유학한 경험도 있다. 1904년 러일전쟁 시기 육군통역으로 참여했고 1909년에 만철조사부에 들어가 만주조선역사지리조사에 참여한다. 1922년에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위원 겸 간사로 임명되며 1925년부터 수사관으로서 『조선사』의 편집에 관여한다. 1932년 교토제국대학으로부터 조선사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38년 만주건국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여 1940년 만주국의 수도인 신경에서 죽는다. 이나바 이와키치는 만선불가분론이나 만선일가론의 입장에서 조선의 개국설화를 바라보았다.

이나바 이와키치는 기자동래에 대해 기자동래 전설이라 깎아내리며 설화로 치부하고 있다. 이나바 이와키치는 주나라 무왕 시절에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가자 주 무왕은 그곳을 봉지로 주었으며 조선이라는 명칭은 이때 처음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나바 이와키치는 고구려가 기자가 한을 숭배했던 것을 본다면 기자전설은 조선반도 한쪽의 일이 아니라 만주와 조선 전체를 거쳐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나바 이와키치는 북경에서부터 조선에 걸쳐 기자전설이 퍼져 있으며 그것이 기자동래설로 연결되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평양성 외곽의 한 구릉에 있는 묘를 지칭한 것이며 평양에는 고려말기부터 단군(壇君)조선 설화가 나타났다고 보았다.⁵¹⁾ 이나바 이와키치의 이런 주장은 앞서 시라토리 와 이마니시의 견해와 대동소이하며 서술방향과 논리 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이나바가 만선사의 창시자라는 점에서 이나바의 주장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곧 이나바 이와키치는 북경과 만주와 조선에 걸쳐 기성(箕星) 등 천문 분야에 기자전설이 퍼져 있으며 그것이 기자동래설로 연결되었다고 주

51) 稻葉岩吉, 矢野仁一, 『朝鮮史滿洲史』 平凡社, 1939, 6~9쪽.

장한 것이다. 이러한 면은 대부분 근대 일본인들의 기자조선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어 어찌 보면 진부한 느낌을 준다. 다만 여기서 기성은 별이름을 말하는데 이십팔숙(二十八宿)의 하나로 방향은 동북방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은 이미 앞서 지적되었다. 이나바는 단군에 대해 설화로 치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자동래 전설을 단지 설화로 치부하고 기자전설에 대해 이것이 한무제 이후의 기록이라며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나바는 기자조선의 부정과 기자동래 전설을 동시에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시라토리 와 이마니시와 다를 바 없다. 이는 조선사편수위원회로 근무한 1920년대 이후 근대 일본인의 기자조선관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나바는 1922년에 발표된 「조선의 문화문제(朝鮮の文化問題)」⁵²⁾에서 “朝鮮人は箕子傳説の奉事를支配者階級에一任하고, 따로 새로이民族的信仰의中心을慾求하였은 듯하니, 저檀君傳説이正히 그것이다. …附庸傳説로서解放되고獨立한民族信仰의中心으로매진하여가는朝鮮人の今日은慶賀해야 할 것이 무론이지마는,傳説은 어디까지든지傳説이요歷史가 아닌 것에理會가 없어서는 아니 된다”⁵³⁾라며 기자조선과 단군조선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같은 이나바의 견해는 바로 당대의 최남선의 반박을 불러온다. 곧 최남선은 이상의 이나바의 주장을 단군전설과 기자전설 이 두 가지 중에 기자전설이 지배자 계급 즉 국가의 대외적인 필요로 인해 공공하여지고 반면 단군전설은 민족적 요구로 사회의 저변에 잠행하여 내려오다가 근래에 와서 중국의 권위가 쇠락하고 또 한일합병에 동반하여 계급이 소멸하는 통에 단군전설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3.1독립운동으로 단군신앙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며 이나바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만담(漫談)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하였다.⁵⁴⁾ 『조

52) 稻葉岩吉, 「朝鮮の文化問題」, 『支那社會史研究』大鑑閣, 1922.

53) 최남선, 앞의 논문, 1926 ; 『六堂崔南善全集』2, 현암사, 1973, 89쪽.

선사』 편찬의 실무책임자인 이나바와 최남선의 논쟁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단군과 기자논쟁은 1928년 최남선이 조선사편수회에 가담함으로써 1934년에 개최된 조선사편수회의 위원회에서 최남선은 이나바와 다시 한 번 설전을 벌였다.

“최남선위원

단군과 기자 항목은 조선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회 편찬의 『조선사』에서는 그것을 수록하게 되어 있는 제1편의 割註나 頭註로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나바 간사

본회의 편찬방침으로 채택된 편년체 형식으로 그것을 집어넣을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⁵⁵⁾

최남선은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본문에 단군과 기자가 할주나 두 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사』 편찬계획을 주도한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와 이나바는 『조선사』가 편년체 역사서술이라며 단군과 기자는 본문에 실을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이나바는 단군신화와 기자전설은 어디까지나 고려시대에 확정된 전설로 그 시기도 고려시대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하며 기자에 대한 전설도 부정하였다. 다만 이나바는 기자전설이 처음 퍼진 것은 고구려로 이 기자전설은 고구려만 아니고 후금 곧 여진인에게도 기자전설이 퍼졌다고 주장하였다. 곧 기자전설은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만주와 조선 전체의 것이라 본 것이다. 이나바는 기자전설의 성격에 대해 그것이 부용적인 것에 비해 단군전설은 독창적이며 지방적이라고 하는 견해도 피력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기자전설이 고구려만이 아니고

54) 최남선, 앞의 논문, 1926 ; 『六堂崔南善全集』 2, 현암사, 1973, 89쪽.

5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 2008, 508~509쪽.

여진인에게도 전해 온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또 이나바는 일본의 건국이 고구려보다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선반도를 두고 쟁패한 것은 이들 양국 즉 일본과 고구려였다는 주장을 한다.⁵⁶⁾ 이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조선상고사 왜곡에 바탕을 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미 앞서 지적되었듯이 근대 일본인의 조선침략론의 서두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부터 시작되는 조선 멸시는 식민지 시대를 쭉 관통하여 이나바의 시대까지 내려 왔던 것이다. 반면 이나바의 조선멸시는 조선은 물론 만주에 까지 만선사로 그 전선이 확장되었음이 지적된다.

결국 이나바의 역사학에 있어 단군과 기자는 만선불가분의 입장에서만 필요로 했고 만선불가분론과 함께 조선민족의 만주진출을 주장했던 것이다.⁵⁷⁾ 이나바의 이러한 단군과 기자인식은 1932년 만주에 만주국이 건립되고 실제로 만주와 조선의 불가분의 관계를 ‘만선일여’로 더욱 강조하게 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나바가 주장하는 만선사는 단군과 기자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고려후기의 창작물로 확정해 보는 것이었다. 이나바는 기자와 위만도 모두 중국인이라며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또 위만조선도 역시 조선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고조선사는 만주사에 속하여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나바의 견해는 만선불가분론과 함께 이나바가 만변한을 청천강으로 보며 패수를 대동강으로 보고 있는 견해⁵⁸⁾와 더불어 그의 역사학이 식민주의 사학 및 관변사학의 테두리 안에 있음이 지적된다.

56) 稻葉岩吉, 矢野仁一, 『朝鮮史滿洲史』, 平凡社, 1939, 5~6쪽.

57) 井上直樹, 「稻葉君山の檀君神話認識」, 『韓日關係史研究』 74, 2021, 43쪽.

58) 稻葉岩吉, 『增訂滿洲發達史』, 日本評論社, 1941, 11~12쪽.

4. 맺음말

이상에서 근대 일본인의 기자조선에 대한 연구로 하야시 타이스케(林泰輔), 츠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 호소이 하지메(細井肇), 니시카와 켄(西川權),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이마니시 류(今西龍),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대 일본인의 기자조선에 대한 연구는 단군부정과 함께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부류 또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하는 부류로 나누어진다. 시라토리 와 이마니시, 이나바 등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근대 일본의 정통 사학자들은 기자조선의 존재 또는 기자동래설을 부인한다. 이는 현재 한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기자동래 부인설과 같은 맥락을 가지나 그 근본은 다르다. 즉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자조선 부인설은 기자동래를 부인하여 고조선의 역사를 위만조선 이후로 내리려는 목적이 있음을 간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시 조선의 역사를 위만 이후 삼한시대에 한정함으로써 일본의 역사가 더 오래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저의가 있음이 간파된다. 반면에 이러한 근대 일본의 정통사학자들과는 다르게 츠네야 세이후쿠와 니시카와 켄 등 재야계열 연구자들은 요서~요동~평양 등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하였다. 1910년대를 전후하여 츠네야 세이후쿠와 니시카와 켄 등이 기자조선 이동설을 주장한 배경에는 일본육군의 만주진출에 따른 만주에의 관심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들 재야 근대 일본인들의 기자조선 인정설은 일본의 대륙진출과 연관되어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근대 일본의 정통 사학자들에 의한 기자조선과 기자동래 부정설은 오늘날 한국학계에서 주장하는 기자조선 및 동래 부정설과는 그 근본이 다를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곧 한국사학계가 주장하는 기자조선설은 해당 전승이 필요했던 시대의 역사적 산물로 실제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근대 일본인들에 의한 기자조선 부정

설은 일본이 조선보다 건국이 오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창출된 것이었다. 결국 시라토리 등 근대 일본의 정통 사학자들에 의한 기자조선 부정설은 분명 식민지시대 식민주의 역사학의 테두리 안에 있고 또 그들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일방적인 것에 불과함이 노정되고 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남중, 「箕子 전승의 형성과 단군 신화에의 편입 과정」, 『韓國史學報』 65, 2016.
- 류시현, 「일제강점기 민족사의 구성과 기자(조선) 인식」, 『韓國史學報』 65, 2016.
- 박광용, 「箕子朝鮮에 대한 認識의 변천」, 『韓國史論』 6, 1980.
- 박찬홍, 「白鳥庫吉와 ‘滿鮮史學’의 성립」, 『동북아역사논총』 26, 2009.
- 서신혜, 「일제시대 일본인의 古書刊行과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활동」, 『溫知論叢』 16, 2007.
- 심희찬, 「근대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거리」, 『韓國史學史學報』 28, 2013.
- 오현수, 「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 『大東文化研究』 79, 2012.
- 오현수, 「箕子傳承의 형성과정 연구」, 『韓國史學報』 65, 2016.
- 윤병모, 「건창 동대장자유적과 고조선」, 『유라시아문화』 4, 2021.
- 윤병모, 「근대일본의 단군 후대 창안설과 만선사학—시라토리 구라키치와 이마니시 류, 이나바 이와키치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77, 2022.
- 윤소영,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조선 인식과 ‘제국의 꿈」, 『한국근대사연구』 45, 2008.
- 장우순, 「시라토리 구라키치의 ‘만선’과 ‘동양」,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 전성곤, 「단군론—조선을 중심으로 한 동방 문화 연원 연구」, 『단군론』 경인문화사, 2013.
- 정준영,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조선사, 혹은 식민지 고대사에서 종속성 발견하기」, 『사회와 역사』 115, 2017.
- 조원진, 「기자동래설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109, 2023.
- 千寬宇, 「箕子攷」, 『東方學志』 15, 1974.
- 최남선, 「朝鮮史의 箕子は 支那의 箕子가 아니다」, 『怪奇』 2, 東明社, 1929.
- 최남선, 「古朝鮮에 있어서의 政治規範」, 『朝鮮學報』 第1卷 第1號, 1930.
- 홍을표, 「기자조선에 대한 문헌적 분석」, 『江原史學』 24·25, 2011.
- 苗威, 『箕氏朝鮮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9.
- 張博泉,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1985.
- 今西龍, 「箕子朝鮮傳說考」, 『支那學』 第2卷 10·11號, 1922.

吉田東伍, 『日韓古史斷』 富山房, 1893.

稻葉岩吉, 『增訂滿洲發達史』, 日本評論社, 1941.

白鳥庫吉,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 第2卷 第2號, 東洋協會調查部,
1912.

三浦周行, 「朝鮮の開國傳説」, 『歴史と地理』 第1卷 第5號, 史學地理學同攷會,
1918.

井上直樹, 「稻葉君山の檀君神話認識」, 『韓日關係史研究』 74, 2021.

【ABSTRACT】

Modern Japanese perception of Gija Chosun

Yoon, Byoung-mo

Modern Japanese studies on Gija Chosun can be divided into those that deny Gija Chosun along with the Dangun denial, and those that insist on the movement theory of Gija Chosun. Shiratori, Imanishi, and Inaba deny the existence of Gija Chosun or the rumor of Gija-Dongrae. This has the same context as the denial of Gija-Dongrae, which is now claimed by the Korean historical community, but the root is different. In other words, the theory of denial of Gija Chosun, which modern Japanese historians insist on, aims to deny Gija-Dongrae and descend the history of Old Chosun to Wiman Chosun. Therefore, there is an intention to assert that Japan's history is older by limiting the history of Chosun at that time to the period of the Three-Han after Wiman. On the other hand, unlike these orthodox historians of modern Japan, Seifuku Tsuneya and Ken Nishikawa insist on the theory of movement in Gija Chosun, such as Liaoxi-Liaodong-Pyongyang. Around the 1910s, the Japanese people's interest in Manchuria following the advance of the Japanese army into Manchuria was reflected in the background of the theory of moving to Gija Chosun. It can be said that the theory of recognition of Gija Chosun by these modern Japanese people living in Japan is related to Japan's advance into the continent. It is pointed out that the denial theory of Gija Chosun and

Dongrae by orthodox historians in modern Japa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denial theory of Gija Chosun and Dongrae claimed by Korean academia today. The false theory of Gija Chosun by modern Japanese was created to emphasize that Japan was founded longer than Chosun. In the end, it is revealed that the false theory of Gija Chosun by orthodox historians of modern Japan, such as Shiratori, is clearly within the framework of colonial history in the colonial era, and that their claim is only one-sided, unrelated to historical facts.

【Key words】

Modern Japanese, Gija Chosun, The Legend of Gija, Old Chosun, History of Colonialism

